



지방
자치단체장이
바라본 하천
RIVER & CULTURE



김관웅 | 경상북도지사

생태와 환경이 살아 숨쉬고, 경제와 문화가 흐르는 낙동강



1. 낙동강의 유래와 현황

낙동강의 원래 이름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황산강(黃山江), 황산진(黃山津)으로 불리다가, 조선시대 역사지리지인 동국여지승람에서는 낙수, 낙동강이라 하였다. 황산이라는 이름은 지금의 양산시 물금읍에 있던 황산나무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국시대에 신라의 수도 경주와 가락의 중심지 김해 사이에 위치하면서 교역이 성했던 곳이다. 낙동강은 가락의 동쪽을 흐르는 강을 의미하며, 여기서 가락이라 함은 삼국시대에 가락국의 땅이었던 지금의 상주땅을 가리킨다.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금태봉 동쪽계곡에서 시작 후 황지천을 따라 남하하여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서 분류인 낙동강 물줄기가 형성된다. 유역면적은 남한면적의 25.9%인 23,384.21km², 유로연장은 510.36km이다. 동서장은 약 150km, 남북장은 약 250km이다.

2. 전시행정예 밀린 하천관리

물은 생명의 절대요구다. 그만큼 개인, 국가를 가릴 것 없이 물 확보 노력은 치열하다. 무논에서 발생하던 농사꾼 사이의 싸움은 살인으로 번지고, 국가간의 물싸움은 전쟁으로 비화되기 일쑤였다. 때문에 동서를 불문하고 역사 이래 이수·치수는 나라 통치의 최우선 과제였다.

일찍이 중국의 선현 관자는 “물은 땅의 피요 기(氣)라 했다. 물은 모세혈관처럼 흘러 땅의 비옥도를 지탱해준다. 하천은 흘러 백성의 목을 축여 주는 관이 되고, 생명체가 당초 물에서 연유했음의 흔적인 친수본능을 충족시켜주는 푸근한 공간이 된다.

그럼에도 댐 건설과 저수지 축조에 열심이던 3공화국 이후, 도로건설 분야에 국가예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하천정비는 뒷전이었다. 도로건설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고 번듯하지

만 하천정비의 사업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림 1〉 정송 주산지

3. 낙동강 살리기의 의의

1천3백만 영남인의 젖줄, 낙동강. 옛날 가야와 신라, 유교 문화를 꽃피웠고 오늘날 산업발전의 대동맥으로 한국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영남의 문화와 삶이 녹아 있는 낙동강은 해마다 겪는 수해와 물 부족, 오염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위험한 강'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강을 되살리고 강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4대강 살리기의 한 축인 낙동강 살리기 사

업은 '경제와 환경을 모두 살리는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입니다. 즉, 낙동강 살리기는 홍수와 가뭄, 물 부족, 물 오염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하천복원 프로젝트',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환경복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발전사업', 새로운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발전 프로젝트'의 4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본질과 기대효과

우선, 물그릇을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淤)와 중소규모 댐, 농업용 저수지를 만들어 용수 10억 톤 가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둘째, 홍수조절 능력 확대입니다. 하도준설과 하구둑 배수문 증설, 노후제방 보강 등으로 낙동강의 홍수조절 용량이 6억 톤 늘어납니다. 셋째,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입니다. 하수폐수처리장, 저류시설, 생태습지, 생태하천 조성 등이 이를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복합공간 창출사업입니다. 자전거 길과 그린슈퍼벨트, 워터프런트 등을 조성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강변을 만들게 됩니다.

낙동강 살리기는 경북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입니다. 현실 경제측면에서 보면 위기에 처한 지역



〈그림 2〉 낙동강에서 래프팅



〈그림 3〉 하회마을(사업시행 전)



〈그림 4〉 하회마을(사업시행 후)

건설업을 구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낙동강 살리기의 전체 사업비는 9조 8천억으로 이 가운데 경북지역 사업비는 5조 4천억원 정도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일자리는 9만 7천개, 생산유발 효과도 약 10조원 정도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미래관점에서 보면 낙동강 권역전체에 새로운 강 문화권과 강 경제권을 형성해 구미, 포항 이외에 새로운 성장 축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5. 사업추진 중 해결해야 할 과제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인 낙동강을 되살려 수량도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는 이 사업이 도민들의 공감대속에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천부지 보상, 준설토 처리 등과 관련한 민원에 적절히 대응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평가, 문화재 조사 등 사업추진 과정 역시 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수질 오염, 사고 발생, 취수 및 정수대책, 생태계 훼손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6. 지역 주민들에게

낙동강 살리기는 민족적 사업이고 거대한 역사의 강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북의 운명이 걸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강을 통해 먹고 살고 환경도 지키는 성공 모델을 경북에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